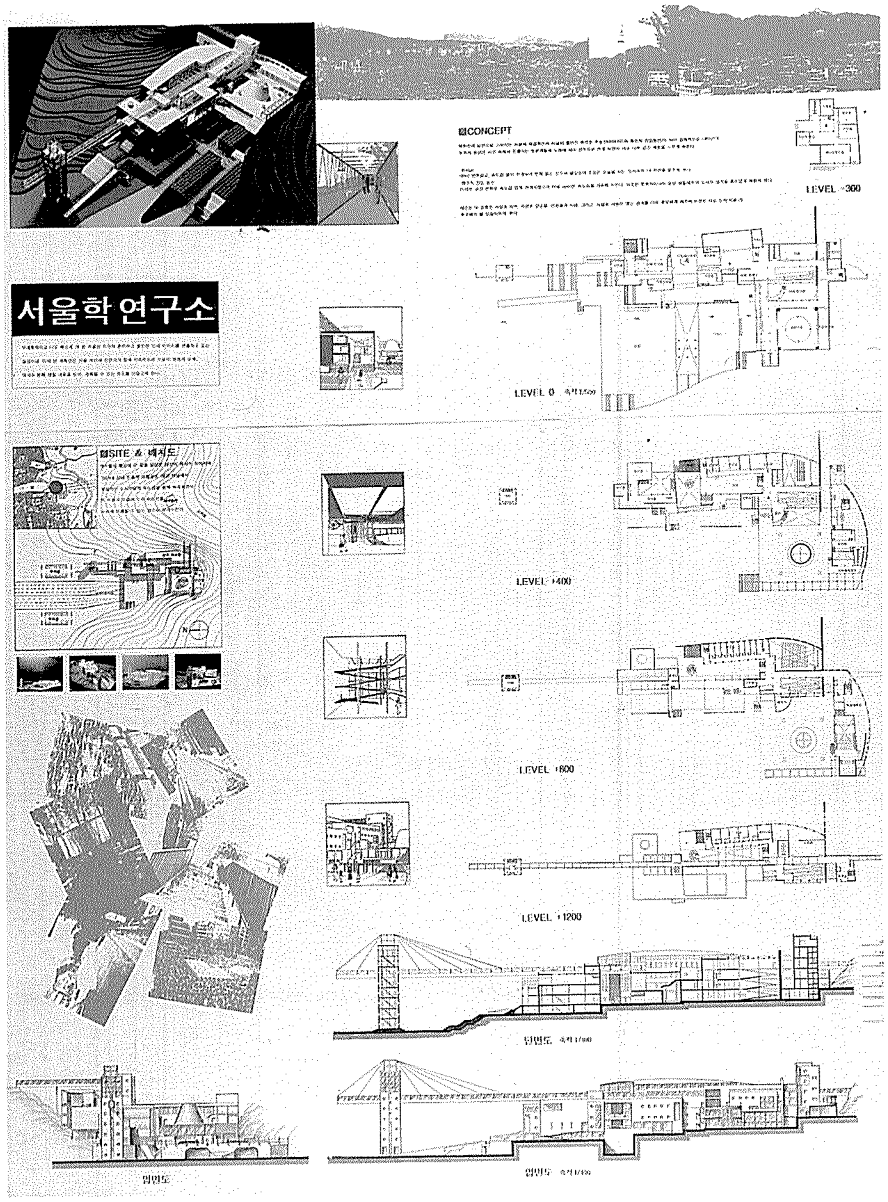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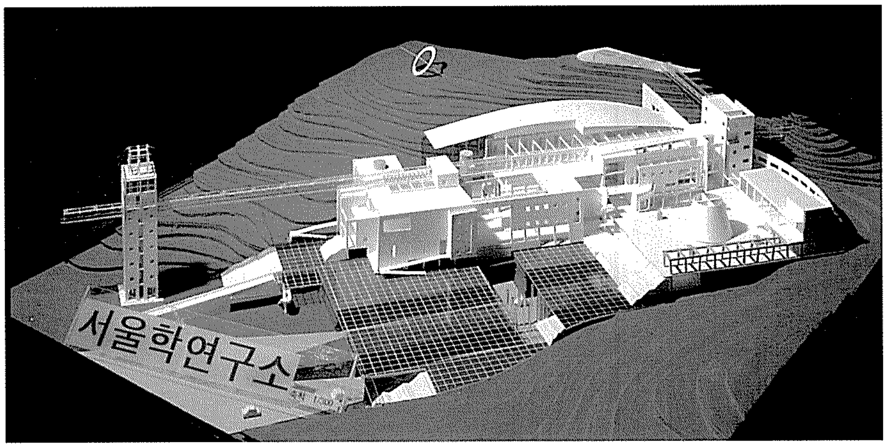
AWARDS
'95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부문
우수상

서울학연구소

홍만식+김지원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Designed by Hong Man-Shik & Kim Chi-Won





공간 체험

북한산과 남산으로 그어지는 서울의 육경축선과 터널의 틀어진 축선은 주동선(bridge와 램프식 동선)이 되어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동선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방문객들의 노정에 따라 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서로 다른 공간 체험을 느끼게 해 준다.

180m 가량의 긴 동선으로 변화없고 속도감 없이 전개되는 bridge는 주위의 남산과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서울 속에 있음을 실감케 한다. 문안에서 천만 도시로 변모한 오늘의 서울, 산수는 변함없지만 그 기능과 규모는 크게 다른 서울, 그 속에서 오늘을 사는 나 자신. 이처럼 도시속의 나를 경험하게 된다.

다른 한편 틀어진 동선은 경사로, 터널식 진입, 선적인 전시공간, 짧은 bridge 등, 다양한 변화를 주므로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그리고, 터널의 일부를 open시킴으로 인해 속도감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것이 함축적이나마 일상생활에서의 도시적 성격을 흥미있게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두 경험은 사람과 자연, 자연과 인공물, 인공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며 이것은 바로 도시(서울)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적절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현 서울의 미래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미래 지향적 장소로 제시한다.

기능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서울의 토의, 계획, 전시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기능도 수용한다. 전문가 10인은 늘 상주 연구할 수 있도록 숙소(2인 1실)와 연구실을 넣었고, 강의실, 작업실, 세미나실, 도서관 등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능이다. 또 광장, 공연장 및 임대 전시장의 마련으로 지역 주민 및 서울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